

고금리·고물가... 비명이 쏟아진다

주담대 2.1%에서 2.47%로 올라
값아야 할 이자 월 수십만원 늘어
치솟는 물가에 외식 하기도 겁나
주가 폭락에 빚투자자 '전전공공'

“매달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40)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받았다. 그렇게 총 4억원 상당을 은행에서 빌렸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2.1%였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이자율은 2.47%로, 신용대출 금리는 1.86%에서 무려 3.01%로 올랐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한 달에 원금을 제외하고 A씨가 갚아야 할 이자만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늘었다.

A씨는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금리가 오르면, 물가도 무섭게 올랐다”며 “출퇴근 기름값에 점심 밥값, 대출이자만 해도 매달 150만원은 우습다”고 하소연했다.

퇴직을 앞두고 노후를 위해 대출을 받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시작했다는 B(59)씨는 최근 사업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은행에서 5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3.39%였던 대출 금리가 4.69% 오르면서 매달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55만원이 더 늘었다.

B씨는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 태양광발전소 수입보다 이자 지출이 더 많을 지경”이라며 “앞으로 더 금리가 오르면 손해만 볼 듯해 발전소를 매각하고 대출을 갚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 것에 비해 물가는 급등하면서 씹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대출 금리도 연일 치솟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기 위해 점심시간 저렴한 한 끼를 찾아다니는 등 하루하루 절약하며 버티고 있지만, 물가와 금리부담이 워낙 큰 탓에 이마저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14%로 한 달 새 0.09%포인트 높아졌다. 2014년 1월(4.15%) 이래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 3.91%에 비해서는 0.23%나 오른 것이다.

가계대출 중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새 5.62%에서 5.78%로 0.16%포인트나 올랐는데,



“더위엔 분수가 최고”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특보가 계속된 3일 오후 담양 죽녹원 앞에 설치된 분수에 조성된 조형물이 시원스레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4도 폭염에 열대야... 7일부터 장맛비

광주·담양·나주·화순 폭염 경보

이번 주 광주·전남은 폭염이 지속된다 7일부터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담양·나주·화순 4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으며, 전남 1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4호 태풍 ‘애러리’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밤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올라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초 부산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

풍 애러리는 방향을 틀어 6일 일본 오사카 쪽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호남 지역에 직·간접적 풍수 피해를 주진 않으나,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 넣으면서 폭염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4-6일 광주·전남은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가끔 5-40mm의 소나기가 내리고, 7-8일에는 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 역시 2014년 1월(5.85%) 이래 8년 4개월 만의 최고점이다.

치솟는 물가와 직장인들의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가 5.5%, 전남이 6.2% 상승했다. 광주 물가는 2008년 8월(6.0%)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전남도 2008년 7월(6.3%)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식물가는 더 올랐다. 광주의 외식물가는 전년 대비 7.2% 올라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8월(7.6%) 이후 23년 9개월 만에 7%선을 넘겼다. 전남 외식물가도 7.4% 오르면서 2008년 12월 금융

위기(7.5%) 이후 1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이처럼 물가가 크게 오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만원으로는 점심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됐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C(여·24)씨는 “식비가 부담스러워 동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기보다 혼자 간단히 때울 때가 많다”며 “식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겁나 1000-2000원짜리를 찾아다닌다. ‘한턱 쓴다’는 분위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전기·가스요금도 인상되고 추석(9월 10일)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7~8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번 주부터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대부분 연 6%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달 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경제계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계속해 오르면 매달 이자 상환액이 커지게 되고, 물가마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가계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신용대출을 받아 ‘빚투’에 나선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도 폭락을 면치 못해 자산시장 악화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아프면 쉬어도 돼요”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부,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순천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불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이중 순천과 창원에는 근로자가 임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올해 하루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이다. /연합뉴스

조유니양 가족 철저한 고립생활 했다 ▶6면

소크라테스 코뿔 꿀절 ‘잠시 쉬어갈게요’ ▶18면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 경북 포함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AVER 씨앤에이논술 검색 대치동 씨앤에이논술

독서·토론·논술 설명회

광주남구 ☎062-400-3535
★7월 11일(월) 오후 1시

무안남악 ☎061-285-2663
★1차 : 7월 12일(화) 오전 11시
★2차 : 7월 20일(수) 오전 11시

여수 ☎061-810-0059
★1차 : 7월 13일(수) 오전 11시
★2차 : 7월 19일(화) 오전 11시

※사전 예약 필수!

1. 문해력의 기본은 독서입니다.
2. 독서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3. 토론은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입니다.
4. 논술은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글쓰기입니다.




※참석하시는 분께는 광고 도서를 드립니다!